

# 지하철공사 인근 갈라짐 현상... 주민 불안 커진다

## SOCIETY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 남구 대남대로 인도·마트 주차장 피해...건물 해체 명령도 지반 침하 증상은 없어...도시철도건설본부 "원만히 합의"

“벌써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주차장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갈라졌습니다.”

광주 도시철도2호선공사 현장 주변에서 지반 침하 의심 신고가 속출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접수된 민원은 총 248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7건, 2021년 520건, 2022년 581건, 2023년 594건, 2024년 673건이다. 올해도 지난 2월까지 158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착공이 시작된 지난 2019년 41건과 비교했을 때 민원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2021년을 기준으로 폭증하고 있다.

민원의 대부분은 도로 보수, 차량 통행, 인도 관련 불편 등의 교통 분야에 집

중돼 있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 796건, 안전 687건, 생활·보상 405건, 공사문의 211건, 기타 179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중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분야는 사고 위험성이 큰 안전 분야다.

실제로 지난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구 봉선동 대남대로 주변 인도가 파손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남구 측이 현장 확인한 결과 도시철도2호선공사 4공구 현장과 인접한 남광주농협 마트부터 광주예술리신협 본점까지 170여m(깊이 5cm)에 갈라짐 현상이 발견됐다.

물이 잘 스며드는 콘크리트 재질인 투수관으로 된 인도는 마치 생채기가 난 것처럼 찢어졌으며, 보도블록은 뒤틀리거나 일부 구간은 움푹 꺼져있었다.



25일 지하철 2호선 공사로 균열이 발생한 광주 남구 봉선동 대남대로 주변 인도 모습.



농협 마트 주차장 역시 균열이 확인됐다. 마트 관계자는 “재작년 무렵에도 주차장이 갈라져 지난해 전체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했는데 또 갈라졌다”며 “가득이나 공사 소음과 먼지, 차량 정제로 손해를 보는데 이런 피해까지 발생하니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남구는 도시철도2호선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총격과 진동이 노면 갈라짐의 원인이 됐다는 것.

남구 관계자는 “지반 침하, 땅 꺼짐 현상 등과 같은 전조 증상은 없다”면서 “도

시철도건설본부 측에서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구 전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공사로 인한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남구 대남대로 일대 인도와 도로 사이에 설치된 빗물받이가 가라앉았다'는 민원이 도시철도건설본부로 접수됐다.

지난 2월에는 공사 현장과 인접한 방림동 한 노후건물(3층 상가 주택)이 기울어져 남구 측이 보수·보강(해체) 명령을 내

리기도 했다. 바로 옆 건물의 마당에 땅 꺼짐 현상이 확인.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보수 공사를 약속했다.

지난해 5월에는 도시철도2호선 2공구 현장 인근 금호동 한 아파트 내부 주차장 도로 일부에 땅이 5~7cm가량 갈라져 있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전부터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 관련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며 처음 주차장 균열이 발생했을 때 포장을 1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수시로 공사 위치를 옮기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공사 현장과 인접한 도로 등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피해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보수를 하고 있다. 피해 관련 보령에 가입한 상태다. 피해자분들과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2호선 공사 4공구 공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예보 06:28    🌧️ 당분 04:35  
☀️ 예보 18:49    🌧️ 당분 15:08



## “윤 탄핵, 늦출 수 없다”... 헌재 결정 촉구

### 광주비상행동 기자회견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면서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1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정권각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 내란사태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잡지 못했다”며 “정의 실현이 계속 유보되는 것은 곧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여

론조사 결과, 77.6%의 국민이 탄핵 선고를 조속히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63.5%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할 경우 계엄령이 재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이미 불법계엄 사태로 인해 수십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국민들은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하루 빨리 혼란을 수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암흑에 빠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광주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헌법의 정신과 법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거대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윤석열정권각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은 25일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희롱성 발언, 농담으로 폄하한 서구 의원 규탄”

### 광주·전남 여성단체, 공식 사과·성인지교육 이수 요구

〈속보〉 ‘동료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농담이었다고?’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가 서구의회에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보 3월 22일자 5면〉

25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희롱 발언에 대한 정당한 징계 조치를 농담으로 폄하한 김옥수 서구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쌍육을 한 의원은 윤리특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성희롱성 농담을 한 오광록 의

원만 윤리특위에 회부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 오광록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행사 중 한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려면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월 17일 해당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성희롱 발언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징계조치가 농담이나 가벼운 행위로 치부되는 것은 성인지 감

수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원의 5분 발언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지역 현안, 행정기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중요한 기회임에도 공식 석상에서 ‘성희롱성 농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성희롱을 가벼운 일로 여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을 단순한 농담으로 만드는 것은 정상적 문화로 위치시켜 성희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심각성을 간과하게 만든다”며 “우리는 해당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맑음(☀️)	7~25
목포	맑음(☀️)	7~22
여수	흐림(☁️)	10~16
순천	흐림(☁️)	8~22
구례	맑음(☀️)	7~25
광주	맑음(☀️)	5~22
임도	흐림(☁️)	7~20
흑산도	맑음(☀️)	8~16
진남	맑음(☀️)	6~19
고흥	흐림(☁️)	5~19
진도	맑음(☀️)	5~19

### 하천 번사체...마네킹 '해프닝'

마네킹    전남 진도군의 한 마을 주민이 하천에 떠밀려온 마네킹을 번사체로 오인 신고, 소방당국이 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져.

25일 진도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9분 전남 진도군 진도를 수우리의 한 하천에 “사람이 물에 떠내려 가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즉시 인력 9명을 투입해 현장을 확인.

번사체로 추정되는 형체를 건져 살펴본 결과 피부 등이 인체 피부와 흡사한 실리콘 재질의 마네킹으로 밝혀져, 소방당국은 버려진 마네킹이 하천을 통해 떠밀려 온 것으로 판단, 수거 후 철수했다.

소방 관계자는 “마네킹의 피부 등이 사람과 비슷해 번사자로 오인한 것 같다”고 설명.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담책 30대 '실행'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달러로 환전해 범죄 조직에 넘기고 수천만원을 갠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1만 달러로 환

전,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2500만원 을 송금했다.

A씨는 “은행 대신 개인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직의 말을 믿고, 전담책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전남 여수에서 15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안전보습 몬스타수분

**TONYMOLY**  
street culture

EWG Green 등급 원료 처방  
순도 100% 발효녹차 사용

THE CHOK CHOK GREEN TEA Water Cream  
CONTAINS 100% PURE GREEN TEA FERMENT EXTRACT  
Instead of distilled water  
TONYMOLY

토니모리 더촉촉 그린티 수분크림